

# 제 64 호

서기 1999년(단기4332년)1월25일(월)발행  
 서기 1971년 9월 26일 창간  
 구독신청 전화 : (02)2244-3717  
 기사 및 원고전송팩스 : (02)2243-1073



發行人: 金相勳  
 編輯人: 金命會  
 印刷人: 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特別市 東大門區 徽慶洞 112-49  
 우편번호: 130-091  
 전화: (02)2244-3717  
 FAX: (02)2243-1073

대체계좌: 010983-31-0513119 수단비온라인: 국민은행 356-01-0011-568 예금주: 안동김씨대중회

## 우리安東金氏의 族親繁榮의 勢

東洋의 문화와 西洋의 자본주의가 대립하면서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의 方向이 변화하여 핵가족 시대를 맞게 됨으로 우리 전통 예절과 家系の 맥이 잊혀져 감이 통감되어 미력하나마 家系의 族親勢를 약기해 봅니다.

먼저 우리의 族親勢를 이야기 하기전에 姓과 본과의 관계를 약기해보면 貫은 先鄉이라 하기도 하는데 本貫은 조상님의 출신지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성만 가지고 姓을 구분하기가 어려움으로 성과 본을 합하여 사용해서 姓연 동족을 이루게 된 것이다. 본래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상층에만 성을 갖었고 하층민들은 성을 갖지 못했다. 성을 갖은 사람이 적을 때에는 본관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신라시대 이후로 주 군 현 제도가 실시되었는데 縣以上 주 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양민이요, 그 이하 촌락 방곡 역(驛) 도서(島嶼) 등에 거주하는 백성은 천민으로 규정하여 거주지와 신분을 부합시켜 거주지가 본관의 기원이 된 것이다.

본관은 姓연 집단이므로 성도 중요하지만 본관도 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백성이나 노예 등은 성이 없었다. 여 말때 천민이 해방됨과 동시에 성이 보급되고 성과 본관을 구분하기 위하여 본관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기에 중간에 본관이 아니고 본관을 늦게 갖게된 성은 그만큼 발전이 늦었던 것이다.

또 그 늦어진만큼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다. 김씨중에 몇집의 특관한 경로 絡脈(낙맥)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신라 1대왕 박혁거세 제2대왕 남해

제3대 유리왕까지 박씨가 왕을 이어 4대로 부터 박씨 탈해가 즉위한 9년 되는 을축년 어느날 시림(始林)이라 는 숲 나뭇가지에 금빛 찬란한 조그 만 금새가 걸려 있었고 그 밑에 백계(白鷄)가 울고 있었다.

그 새를 가져다 열어보니 그 속에 옥동자가 누워 있었다. 그 모습이 비범하여 아들이 없었던 탈해왕은 크게 기뻐하고 하늘이 내린 복이라 하여 아들로 삼고 이름을 알지(閼智)라고 하고 금새에서 나왔다 하여 성은 김이라 하였으며 시림 숲을 계림(鷄林)이라 하였고 국호까지 계림이라 하였다.

알지공이 성장한 후에 태보(太輔)(1品) 벼슬을 주었다. 태보공 7세 손 미취(味驟)가 석씨 점해왕을 이어 신라 13대 왕으로 김씨가 처음 왕이 되어 경순왕까지 김씨가 38왕 587년 동안 통치했다.

신라는 박씨가 8왕, 석씨가 10왕 전후 상승하여 56왕 992년간 통치하였는데, 국성(國姓) 김씨가 처음으로 본관을 갖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제17대 내물왕의 후손 재영(再英)이 安城 金氏로, 제29대 무열왕의 3자 문주(文注)의 현손 주원(周元)이 강릉김씨 일파로, 제45대 신무왕(神武王)의 2자 흥광(興光)이 광산김씨로, 제48대 현안왕(憲安王)의 서자 궁예(弓裔)의 손자 충(攄)이 순천김씨로 되고, 이 외에 도합 40관(貫)이 新羅시대에 移貫(이관) 되었다.

고려 초기에 와서 경순왕의 후예로 본관된 집은 다음과 같다. 경순왕비 죽방부인(竹房夫人) 竹州朴氏가 3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 일(諱)이 일

명(謙用) 숙칭 마의태자가 부안김씨(扶安金氏)로, 경순왕 2자 황(滄)의 아들 운발(雲發)이 나주김씨로, 왕의 3남 영분공(永芬公)의 6대손 예겸(禮謙)이 경주김씨로 득관했다.

후비 고려태조 왕건의 딸 낙랑공주가 5남2녀를 낳았는데 장자 은열(殷說)(출생서열로 4자) 대안군의 2자 계령(繼寧)의 5대손 태서의 손 혼이 경주김씨 일파로, 대안군의 6대손 태서(台瑞)의 후손 순응이 경주김씨 일파로, 대안군의 후손 인관(仁琯)이 경주김씨로 본관되었는데 경주김씨는 5파로 각각 그 시조를 달리 하였으며 고려가 창업한 후 2백년 뒤에 본관을 갖게 되었다.

신라왕의 김씨는 본관이 없다. 신라왕의 성에서 득본하여 본관된 것으로 서열을 따질 필요도 없지만 경주김씨를 큰집으로 알고 있는 듯 하고 경주김씨들도 그들이 종파같이 큰집인양 알고 있는 경향이 있는듯한데 이는 잘못으로 생각된다.

경순왕의 후손으로서 본관된 서열을 따진다면 부안김씨, 나주김씨, 순으로 생각해야 하며, 경순왕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안성김씨, 강릉김씨, 광산김씨 순으로 생각해야 옳을 것이다.

우리 안동김씨는 경순왕의 4남 대안군 은열(殷說)公의 3자 되시는 숙승(叔承公)께서 안동으로 관직을 두시어 경주김씨 보다 근 2백여년전에 득관한 것이다. 숙승공의 6대손 되시는 충렬공 후손도 6본으로 본관되었다. 충렬공의 손자 도점의공 자(資)의 후손 위(爲)가 수안김씨로, 공의 현손 전서공 成牧의 현손 광유(光酉)가 정산김씨로, 공의 현손 지제공(知製公)

제안(齊顔)의 자 고(阜)가 사천김씨로, 공의 손 상서공(尙書公) 승우(承祐)의 자 지연(之衍)이 청주김씨로, 공의 현손 정의공(正義公) 철(哲)의 손 억민(億敏)이 영해김씨로, 공의 현손 중랑장공(中郎將公) 백(栢)의 자 달(達)이 대구김씨로 본관 되었다.

대안군의 4자 렬(濂)이 김해김씨로, 가락국 수로왕도 김해 김씨 일파이나 신라 왕족 김씨와는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대안군의 제4자 렬(濂)의 자 품언(稟言)의 자가 수원김씨며, 대안군의 제5자 중석(重錫)의 자 일(逸)이 의성김씨로, 대안군의 6자 건(鍵)이 강릉김씨 일파로, 대안군의 7자 선(鎭)이 안양김씨로, 대안군의 8자 추(鍾)가 삼척김씨로, 대안군의 별궁소생인 제9자 덕집(德摯)이 울산김씨로, 죽주박씨 소생 장녀는 고려 경종왕비로 낙랑공주 왕씨 소생 2녀 장수인 황경(黃瓊)이 장수황씨 시조요, 3녀는 경주인 이금서(李金書)인데 이 제현이 시조가 된다. 신안동김씨는 아직 그 시조가 자세하지 못하다.

고창(古昌)(안동의 고호) 성주가 고려 왕건 태조에 귀강(歸降)하여 소관하던 재곡과 인마를 동원하여 고려 창업에 협조한 공으로 태사(太師)의 벼슬을 받았다는 김선평(金宣平)이 시조라한다. 소위 이조 말기에 이른바 세도 정치를 했다는 안동김씨다. 그의 선조 선평이 고창에 살았다 하여 안동으로 득본하였을 뿐 우리 구 안동 김씨와는 관련이 없다. 동성 동본으로 알고 종씨라 혹칭하는 사람이 있는듯한데 이것은 잘못이다.

그러면 우리 안동 김씨는 어떠한가?

우리 안동김씨는 삼한갑족이며 양반이다. 세속에 우리를 세도정치한 집

(2면에 계속)

**교통 안내**

- 좌석버스: 10, 50-1, 166, 205-1, 235, 302, 330, 523, 568, 745, 755, 765
- 일반버스: 2, 3, 5, 6, 8, 10, 15, 20, 30, 45, 50, 55, 55-1, 55-3, 77, 117, 131, 132, 165, 165-1, 166, 166-1, 215, 235, 302, 522

▷버스가이용하실분은 "위생병원" 앞 하차  
 ●지하철: 1호선 회기역하차(위생병원 방향)  
 TEL: (02)2216-0630 ~ 5

**會 費**

安東金氏 大宗會 會長 金相勳 白

一九九九年 四月 二日

當日 晝食提供

六 其他事項

五 任員 改選

四 事業 計劃 承認

三 一九九八年度 事業 經過 報告

二 一九九八年度 歲入 歲出 豫算 案 承認

一 一九九八年度 決算 承認

**會議 案件**

場 所 .. 동대문구 회경동 봄클타운회관 지층

日 時 .. 一九九九年 五月 一日 土曜日 午 前 十一時

一九九九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자 하오니 隣近宗親과 相互連絡하시어 많이 參席하심을 要望합니다.

**第三十二回定期總會 開催公告**

(1면에서 계속)

이다 라고 오인하고 있다. 그리고 선 김이니 후김이니 하는 말이 있는데 이조 중엽 이전에 세상에 많은 인물이 배출된 경순왕계 충렬공 金方慶의 후예를 선김이라 하고 이조 말엽에 국정을 천단이군세소위(擅斷異郡勢所衛) 세도 정치를 한 집이 후김인데 선김은 신라시대 김알지를 시조로 하여 그후에 38왕의 김씨가 박씨 석씨를 이어 신라 통치를 하여 왔고 신라 최후의 왕인 경순왕께서는 자비하고 인후한 마음씨로 말하기를 '내가 왕위를 유지하고자 무고한 백성의 간과 창자를 땅에 뿌리며 피로 물들이지 않겠다' 하고 태자의 간곡한 충의 말로 간함에도 듣지 않고 왕건에게 양위하니 태자는 개골산에 들어가 삼베 옷과 나물을 먹고 머리 깎고 중이 되어 여생을 마쳤고 고려 태조가 경순왕을 전왕으로 예우하고 충애하는 낙랑공주를 출가시켜 예빈으로 맞이하였다.

경순왕의 아들이 전취 소생이 3형제 후취소생이 5형제로 전 후취 소생이 8형제요 별자 1인을 합하여 9형제의 손이 각관(各貫)의 김씨로 분리되어 우리 구 안동김씨는 경순왕의 제4자 대안군 은열공(殷說公)의 2자 숙승공(叔承公)으로 부터 안동으로 득관하여 그 후 6대손 충렬공(忠烈公) 방경(方慶)께서 구 안동의 중시조가 되셨다.

경순왕의 태자(마의태자)가 부안으로, 태자의 2자 교(較)가 통천으로, 경순왕의 2자 황(滄)의 2자 운발(雲

發)이 나주로 각각 득본 분관 되었다. 경주김씨는 경순왕의 3자 영분공(永芬公)의 6대손 예겸(禮謙)의 후예가 있고, 한공(漢公)의 6·7대의 후예 4파가 각기 경주로 시분되었다.

안동김씨 보다 경주김씨는 200여년 후에 득본하여 비로소 경주김씨로 된 것이다.

충렬공께서는 아들 5형제를 두었고 현손대에 가서 16파로 나누어졌고 6본의 분관이 되었다. 공의 자 선(瑄)의 자 자(資)후손이 수안김씨로 이본되고 충렬공의 현손 판밀직사사(判密直司使) 七祐이며, 開城尹公 七霖이며, 郡事公 七陽이고, 典書公 成牧이며, 典書公 후손 일파가 정산김씨로 분적하였다. 부사공 순진(順天)의 7대손 요동백 응하공(應河公)과 충융사 응해공(應海公)의 후손은 철원과 경북에 살고 있다.

공의 현손 구용(九容)은 文溫公으로 후손이 충주 현곡과 영주 정읍에 살고 있으며 文溫公의 弟 계안(齊顔)은 泗川金氏로 分籍하였으며, 安靖公(안정공) 구덕(九德)의 후손은 과천과 공주에 살고 있으며 또 현손 도평의공 구경(九鼎)의 후손은 의성에 살고 있으며, 현손 潤은 淸州金氏로 分貫하고, 대호군공 유(儒)의 후손은 전남 영광에 살고 있고 공의 2자忻의 子 判官 승고(承固)는 무후하였으며, 공의 3자 恂 문영공께서는 忠烈公이 일본을 정벌할 때 아버지를 따라 종군하였고 아들 4형제를 두었는데 長子 문숙공 영돈(永墩)의자 상락백 진(鎭)의 자 제학공 익달(益達)이시니

제학공의 7대손 忠甲의 자 忠武公 時敏將軍이고 將軍의 子 영남 관찰사 치(緄)의 子 백곡 안풍군 득신(得臣)이시니 괴산 방아재에 살고 있다.

충감의 아우 효갑(孝甲) 정언(正言)은 무후이고 우갑(友甲) 후손 時讓계 鼎佑 允迪 聖徵 光著 範叔 鍾健은 괴산 전법에 살고 時亮의 2자 紀의 후손 董臣 允孚 應徵 英著 王父 宗種 應徵 第 海徵 明著의 후손은 숲골에 살고 悌甲 호는 의제(毅齊)이니 후손이 용인에 살고 있고 仁甲은 縣監이고 子 時訓 후손에 荒山에 살고, 그의 子 時說의 후손은 청안에 살고, 3자 時讓은 領伯이며 판중추시니 후손이 제천에 살며, 문영공의 2자 永暉(영휘)의 손 판삼사공 장(場)후손은 해주 삼일방에 살고 있으며 문영공의 3자 자혜사 사순(思順)은 출가하여 사문으로 들어갔다.

문영공의 4자 정강공(貞簡公)은 누구인가가 '손자 士衡 등이 20이 넘었으니 관직을 갖게 하는 것이 어떻하냐' 하고 물으니 공께서 대답이 '자손이 어질면 국가에서 스스로 등용할 것이고 어질지 못하면 국가에서 채용하더라도 지명하지 못할 것이 아니냐고' 하고 그 말을 받아 드리지 아니했다 한다.

충혜왕이 원나라로 잡혀갈 때 조정 백관과 만백성이 겁을 먹고 도망가서 숨었지만 오직 공께서 홀로 창을 잡고 충혜왕을 호위했다 하고 백씨(伯氏) 문숙공과 같이 조적(曹順)의 난을 평정하시며 충의하고 강직과감하셨다. 북창부원군(福昌府院君)

상락후(上洛侯)를 봉하였고 시호를 貞簡이라 받으셨다.

공께서 아들 둘을 두시니 長子 領二司 天(淺)공께서 아들 4형제를 두었으니 長子 判事公 士謙은 무후이고 次子 按廉使公사렴(士廉)은 조선조 혁신기에 오근 도산으로 은익하고 3자 충강공(忠康公) 石樓(石樓) 士安께서는 무후인데 시호가 忠康公으로보아 이조에 출사 한 것으로 보인다.

이조초에 按廉使公이 은익한 곳까지 문후하신 고증으로 보아 출사한 것으로 긍정이 간다. 그리고 判事公은 麗末에 이산이 되어 실전된 것이다. 4자 翼元公 士衡께서는 이조에 나가 개국 공신 정사공신이 되었다. 정간공 2자 장령공 장(莢)의 아들 書雲觀正公 수(綬)의 후손이 서울과 안양에 살고 장령공의 5대손 希壽로 부터 8代孫까지의 4대가 南床湖堂이 2인이고 內翰湖堂이 2인으로 합하여 4인이며 9대손 성립(誠立)의 부인이 여류시인 허씨 許蘭雪軒이다.

충렬공의 4자 倫 가씨부인(加氏夫人) 소생으로 倫 永照 무후, 永照의 弟 永曜 杏, 吉 무후, 吉의 弟 哲(正儀公)정의공이 후손이고, 정의공의 손자 億敏의 금녕김씨로 분적하였고, 杏의 弟 松 무후이고 栢의 子 達은 大邱金氏로 분적하였다. 충렬공의 5자 돈(惇)의 자 永暉公은 무후되었다. 그리하여 충렬공의 현손이 21명이었으나 分籍된 분이 세분이고 무후한 분이 세분으로 現存 15派의 현손의 자손들로 대중회를 이루고 있다.

### 통상회비 납입자 (99. 1. 20 ~ 3.31)

- |  |                              |
|--|------------------------------|
| (翼元公派)<br>泰崇, 재균, 경중, 재화, 상현,<br>선희, 도식, 창묵, 준희, 현식, 태욱,<br>수학, 윤희 | (文溫公派)<br>상복, 재희, 재용         |
| (按廉使公派)<br>문희, 海濱, 思順, 태헌,   | (典書公派)<br>길교, 광주             |
| (提學公派)<br>태영, 재학, 항용, 재철, 만수, 홍열                                   | (郡事公派)<br>鍾泰, 창희, 재신, 대용     |
| (密直司使公派)<br>응묵, 종묵, 용화   | (都評議公派)<br>榮穆                |
|  | (副使公派)<br>동철, 동기, 용호, 수영, 창식 |

- (正儀公派)  
수일  
(開城尹公派)  
찬영  
(派未詳)  
태두, 정희, 정희 석환, 만천,  
진대, 석배, 병만, 종신 용득,  
광석, 선진, 광희, 태영, 영조  
計 1,070,000

### 찬조자명단 (99. 1. 29 ~ 3.31)

- 壹拾萬圓 : 典書公華城郡宗中 會長 鍾文, 總務 鍾錫, 태인(按)  
五萬圓 : 시묵, 용희  
參萬圓 : 영환(文), 규범(提), 태수(翼), 용섭  
計 420,000

### 翼元公派 99年度 定期總會 公告

翼元公派 99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함을 알립니다.

日時 : 1999年 4月30日 金曜日 午前 11時  
場所 : 영등포구 대림1동 태양의 집 TEL. 835-4000

- 案件 : 1. 98년도 事業經過 報告  
2. 98년도 歲入歲出 決算報告  
3. 99년도 豫算案 承認  
4. 任員改選

※ 일단 익원공파 회관으로 집합하여 다같이 회의장으로 가오니 파종회관 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1999년 4월 1일

安東金氏 翼元公派 會長 金瓚 會

### 文溫公 楊若齊 諱九容先生二子 成川都護府使 明理 墓誌石

公께서는 1448年 12月 23日 享年 71歲에 卒하시어 墓는 京畿道 廣州郡 南面 慶安木洞 子坐하고 配位 鷄林郡 夫人 光州李氏는 公의 墓 下封而後 이었는데 1989年 3月 23日 后孫들의 의견을 모아 抱川郡 蒼水面 司養里子坐로 移葬할때 청자항아리 같은 모형에 다 公의 略史를 記錄한 묘지석이 나왔는데 學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발견된 墓誌石이라한다.

文溫公派에서는 이 誌石의 모조품을 원형대로 제작하여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大宗會에도 合점을 寄贈하였다. 그 誌石에 담은 文章을 初頭만 記載해본다.

墓誌文  
公姓金氏 諱明理 安東人 新羅王金傳十五代孫 高麗侍中 上洛郡開國公 方慶之五代孫也 曾祖緯 承澤 直亮 同德 佐理 功臣 金紫光祿大夫 中書侍郎 平章事 諡良簡公 祖緯 昴 追封崇政大夫 議政府贊成事 行重 大臣 上洛君 考諱 九容 奉翊大夫 判典校寺事 進賢館提學 以下 省略



※ 공의 성은 김이요 이름은 明理며 안동인이다. 신라왕 김부(敬順王의 이름)의 15代孫 고려시중 상락군 개국공 방경의 5代손이다. 증조의 휘는 承澤 직양동덕 좌리공신 금자광록대부 중서시랑평장사 시정간공이고 조의 휘는 묘 추봉송정대부 의정부찬성사 행중대광상락군이요 아버지의 휘는 九容이며 봉익대부판전교시사 진현관 제학이시다 이하 생략

# 安東金氏 世居地 由來

文溫公 二十代孫 喆會

忠清北道 陰城郡 甘谷面 桑村은 安東金氏 四百年 世居地다.

安東金氏의 始祖는 金閔智시니 新羅 四代 脫解王때 官職이 大輔에 올라 나라에 크게 貢獻하였으며 七世孫 味離임금이 新羅 十三代 王位에 오르시니 新羅朝 五十六王中 朴氏·昔氏를 除外하고 三十八王이 公의 後孫이다.

貫祖는 新羅 마지막 임금 敬順王의 孫 金叔承公이니 高麗朝에서 工部侍郎 平章事를 歷任하시고 安東太守에 오르시다.

中始祖는 金方慶公이시니 高麗朝 高宗 元宗 忠烈王 三代 임금을 輔弼하면서 蒙古軍 侵略 四十年間의 大亂을 수습하고 蒙古軍을 물러가게 하여 開京還都를 敢行하고 王政을 復歸하였으며 三別抄의 亂을 平定하고 二回에 걸쳐 日本을 征伐하셨다. 公이 八十九歲에 逝去하시니 나라에 끼친 偉대한 貢獻에 대하여 나라에서는 宣忠協謀定難功臣壁上三韓三重大匡을 追贈하고 諡를 忠烈公이라고하고 命하여 神道碑를 세우게 하였다.

派祖는 文溫公 金九容이시니 中始祖 忠烈公의 玄孫이시다. 公은 號를 惕若齋라 하였으며 公은 高麗末에 圖

隱 鄭夢周, 牧隱 李穡, 陶隱 李崇仁 등과 함께 成均館大司成에 올라 性理學을 大成하였으며 偉대한 詩人으로서 훌륭한 名詩를 많이 남기셨으니 世人이 東國詩聖이라 하였다. 또한 나라를 위하여 獻身하시던 公은 明에서 殉國하신 忠臣이시다.

公의 七世孫 金震綱公은 朝鮮朝 十四代 宣祖때 司憲府 監察을 歷任하시고 末년에 陰城縣監에 任命되어 善政을 베풀다가 逝去하시니 長子 大樞公은 이마을 뒤산 송정별(松亭元) 王座에 墓所를 모시니 先祖 十四年 西紀 一五八一年 壬辰倭亂이 일어나기 十一年前이다.

金代濬公은 先祖 二十五年 西紀 一五九二年에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家族을 이끌고 先考逝去時侍墓하던 이 마을에 오시어 七年間 避難하니 一名의 犧牲者도 없었다고 한다.

公은 河陽縣監으로 在職中 光海君이 王位에 올라 忠臣을 迫害하고 奸臣을 불러드려 國政을 어지럽게 하므로 官職을 辭職하고 이 마을에 오시니 人造反正 때 吏曹參議로 贈職되시니 河陽縣民도 公의 德을 追慕하여 祖鄉賢祠에 配享하였다.

공은 이 마을을 개척하여 家屋을

세우고 田畠을 개간하여 農事에 힘쓰고 特히 뽕나무를 많이 植栽하여 自給自足에 힘쓰고 號를 桑齋라 하니 마을 이름도 桑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또 公은 洞內入口에 자라던 느티나무 숲을 잘 가꾸고 磐石위에 正字를 지어 子孫들의 教育에 힘쓰니 이 숲을 모정거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公의 後孫들은 祖上의 遺訓을 받들어 晝耕夜讀하여 勉學에 힘쓰니 많은 人材가 輩出되어 國家에 貢獻하고 家門을 빛내니 隣近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一히 列舉할 수 없으나 몇 분을 紹介하면 公의 玄孫 金始慶 號 晚隱公은 肅宗때에 八道에 守明을 歷任하면서 善政을 베풀어 모든 官員의 龜鑑이 되므로 王이 感歎하여 表彰狀을 내리고 宮中에 불러 올리어 右承旨를 除授하여 王을 輔弼케 하였으며 詩文에 能하여 晚隱集 八卷이 家傳되고 있다. 公의 八世孫 金復仁 公은 正祖때 文科에 及第하여 司憲府 持平으로서 王과 領相 蔡齊恭의 信任을 받았으며 詩文에 能하여 兩山齋集을 남기었다.

漢末에 醒齋 金亨是公은 中樞院 議官을 歷任하였으며 志行이 高潔하며 詩文에 能하셨으며 長子 春湖 金相範公은 漢末에 志士로서 大韓自彊會를 主導하였으며 昌成定州郡守를 歷任하셨다.

金相胤公은 成均館 博士에 올랐으며 長子 金光默은 治財에 능하여 萬石의 富를 이루었으며 金相天公은 韓末에 外國法學校 教官과 皇城新聞社 會長을 歷任하였다. 金相秘公은 法部 主事로 高宗皇帝의 信任을 받았다. 友海 金在英公은 己未年 獨立萬歲때 京城 高普學生을 이끌고 先頭에서 獨立萬歲를 부르다가 退學을 당하고 醫師가 되어 많은 仁術을 베풀어 世人의 尊敬을 받았다.

祖國光復後에도 金學默氏는 美國 미네소타大學院을 卒業하고 美國 하딩 大學에서 名譽博士學位를 받았으며 保健社會部 次官과 大韓赤十字社 副總裁, 韓國社會福祉協議會 會長을 歷任하고 現在 韓國 腦性麻痺福祉會 會長으로 在職하고 있으며 金周默씨는 第四代 國會議員으로 活躍을 하였다.

이분들外에도 官界, 教育界, 醫療界, 實業界, 演藝界, 等に 進出하여 名聲을 떨치고 있으며 博士學位를 받은 者도 十余名을 꼽을 수 있다.

1998年 現在 公의 後孫數는 二百餘 世帶를 헤아릴 수 있으며 大部分이 故鄉을 떠나 서울 등 都市에 進出하여 活躍하고 있다.

陰城縣監 公 後孫들은 精誠을 모아 西紀 一九八九年에 齋閣을 建立하여 崇慕祠敬桑齋라 稱하고 마을入口에 安東金氏 世居碑를 세웠다.

## 提學公派 庇安公 門中 定期總會 開催



(提學公派 庇安公 門中會)는 지난 1998년 11월 28일(일요일), 忠北 槐山郡 槐山邑 東部里 402번지의 (世德祠)에서 약 50여명의 宗親들이 모인 가운데 盛大한 時祭를 모시고 定期總會를 가졌다. 이 (世德祠)는 지난 1992년 現 (庇安公 門中會) 會長인

泰燮氏가 私財 약 1억원을 들여 垞地 약 700여평에 祠堂(世德祠-15평)과 齋室(崇慕齋-30여평)을 짓고 주위를 곱게 조경해 놓은 것이다.

92년부터 매년 時祭를 올리고 있으며 이날 門中 定期總會도 함께 開催하고 있다. 매년 參與 人員이 增加하

고 있으며 宗親들의 關心은 물론 親睦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祠堂에는 총 17位가 奉安되어 있는데 主要 奉安位와 時祭日은 다음과 같다.

1. 主要 奉安位
  - 1) 庇安公(諱 仁甲, 宣祖때 庇安縣監 役임, 主壁으로 모심),
  - 2) 陽德公(諱 時說, 光海君때 陽德縣監 役임),
  - 3) 忠翼公(諱 時讓, 仁祖때 兵曹判書, 都元師, 判中樞府使, 清白吏에 錄選),
  - 4) 陝川公(諱 愨, 仁祖때 陝川郡守 役임),
  - 5) 監司公(諱 素, 仁祖때 黃海 忠清 監司 役임),
  - 6) 安州公(諱 繁, 仁祖때 安州判官 役임)
  - 7) 判書公(諱 徽, 肅宗때 禮·吏曹 判書 役임)
  - 8) 丞旨公(諱 龜萬, 肅宗때 左丞旨 役임)
  - 9) 副護軍(諱 南珽, 英祖때 副護軍 役임)
2. 時祭日: 매년 음력 10월 10일 이후 첫 일요일
3. 門中 會員數: 약 200여명

## 大田廣域市 宗親會 新年交禮會 가져

지난 1월 28일 大田市 宗親會의 新年交禮會가 있었는데 여기 大田宗親會는 大安會와 青年會가 있으며 新灘津分會가 있는데 이날은 3개分會가 合席하여 50余名의 會員이 參席 容都 會長의 人事말씀에 이어 大安會 青年會가 마주서서 맞절을 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宗親會의 융성한 발전을 기원하는 건배로 축배하고 일 년동안의 회고담을 나누며 화기 애애한 분위기 속에 茶果酒를 들며 睦族의 宜를 다졌다.

大田宗親會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大安會 名譽會長 提學公派 泰榮  
會長 翼元公派 容都  
副會長 提學公派 複應  
總務 翼元公派 允會  
監查 按廉使公派 泰殷

青年會 會長 翼元公派 文會  
副會長 按廉使公派 在都  
總務 翼元公派 泰炫

新灘津 分會長 按廉使公派 賢會  
總務 按廉使公派 성암

### 韓國 唯一의 綜合藝術의 殿堂



組版印刷製冊까지 唯一한 綜合工場

컴퓨터組版으로 技術革新

本社 社屋 全景

### 族譜 出版의 元祖

回想社 五大特徵

1. 創立 40週年의 歷史의 全國族譜 90%以上을 出版한 實績을 자랑하는 族譜界의 元祖
2. 컴퓨터組版으로 正確迅速한 電算化로 出版界에 一大革新
3. 編料, 整書, 出版, 印刷, 製冊을 모든 過程을 同一場所에서 行수있는 全國 第一의 綜合工場
4. 原稿에 誤謬가 있을時 組版前 即時 發見하는 30餘年間 勤精한 技能者 多數確保
5. 1,000餘坪以上에 넓은 倉庫의 無料提供으로 1年以上 碩快 便宜提供

### 回想社 서울支社 開設

서울地域에서 族譜編纂 및 出版을 推進中인 門中の 便宜를 爲하여 本社에서는 서울支社를 開設하였읍니다. 各門中の 收單, 整書, 編料, 組版, 校正에 이르기까지 모든 便宜를 서울支社에서 提供코져 하오니 많은 聲援과 移用있으시기 바랍니다.



### 族譜古書 出版製冊 回想社

本 社: 大田直轄市 東區 中洞 47-4  
電話 (042) 253-9881-3, 256-1263  
FAX (042) 253-9891 自宅 253-9892  
서울支社: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4-3 청호빌딩 403호  
電話 (02) 336-6783 FAX (02) 338-9875

### 宗中動靜

지난 2월 23日 韓國海洋大學校 總長 曹京植 博士는 三富海運주식회사 按廉使公 21代孫인 會長 泰麟(泰麟)을 海洋産業과 國家發展에 貢獻을 治하고 名譽經濟學博士學位를 授與하였다.

3月 17日 金學默 한국여성마비복지회장은 여성마비 고교생과 대학생 59명에게 장학금 2,770만원을 전달했다. 學默會長은 文溫公 18代孫이며 史劇 "龍의 눈물" 연출에 PD인 在衡氏의 父親이다.

지난 2월 日 郡事公派 俊會宗親이 辯護士開業式을 하였다. 위치는 淸州法院 앞 흥덕구 수곡동 95-8 화성빌딩 2층이며 전화는 0431 262-4111 FAX:0431-262-4113 우인합동법률사무소이다.

### 祝 古稀

지난 3월 7日 翼元公派副會長兼大宗會 理事인 在起(在起)宗의 古稀宴을 子孫들의 精誠과 孝에 많은 宗親들의 參席裡에 성대히 거행하였다.

### 祝 華婚

지난 1월 16日 大宗會理事인 翼元公派 在光宗親의 막내딸 結婚式을 남산자유센터 웨딩홀 평화실에서 거행하였다.

### 祝 就任

지난 2월 10日 동원그룹회장이신 在哲(在哲)宗에서 韓國貿易協會 會長에 就任하심을 祝賀드립니다.

지난 1월 11日 서울 地方警察廳長인 光植(光植)宗에서 大韓民國警察廳長에 就任하였음을 祝賀드립니다.

### 알고 넘어 갑시다

### 공신록(功臣錄)

공신(功臣)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하여 공(功)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던 칭호이며, 이는 중국(中國)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新羅) 때부터 녹공(綠功)을 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공신호(功臣號)를 내렸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고려(高麗) 때에는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하여 개국에 공을 세운 홍유(洪儒)를 비롯하여 2천여 명을 3등급으로 구분하여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내렸으며, 서기 940년(태조 23)에는 신흥사(新興寺)를 중수(重修)하고 공신당(功臣堂: 공신각이라고도 함)을 두어 1등 및 2등 공신의 화상(畫像)을 벽에다 그려 개국벽상공신(開國壁上功臣)이라 일컫었고, 해마다 제회(齋會)를 열어 복(福)을 빌었으며 뒤에 다시 훈전(勳田)을 내려 대대로 그 자손을 관직에 등용하였다.

이러한 공신들에게 고려 초기에는 녹권(綠券)을 주어 공신증명(功臣證明)을 삼았으나 말기(末期)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 이외에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朝鮮) 시대에 와서는 서기 1392년(태조 1) 7월 16일 이성계(李成桂)가 송경(松京) 수창궁(壽

### 宗會消息

書雲觀正公派에서는 派宗會報를 發刊하여 宗親들께 配達하여 宗親間의 和睦을 다지고 있다. 이번이 28호를 발간하였기에 회장(敎永)의 新年辭를 紹介드립니다.

#### 신년사

多事多難했던, 戊寅年, 1998년, 엄청난 격동과 변혁을 넘어 희망의 벽찬 새해, 己卯年이 밝았습니다. 종원 여러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오. 지난 1년은 국가의 존폐가 흔들리는 아이엠에프, 정권교체, 아슬아슬한 금강산 관광, 잠수함 도발, 폭우, 산사태 등 어지러운 속에서 고생이 많으셨지요?

우리 중증회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계획된 일을 다 이루지 못하고 해를 넘겼으며 특히 지난 8월 7일 안양

지역 폭우로 의왕시 광곡입야가 큰 산사태 피해를 입어 의왕시,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한국도로공사 등지로 뛰어 다니면서 무척 바빴습니다. 다행히 의왕시의 즉각적인 대책으로 거의 원상대로 복구중에 있음은 지하에 계신 조상의 음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광주 입야의 토지 수용과 보상 문제, 광주 문화재 보수(진입로, 환경정리), 안양 광곡입야의 진입로 토지구입, 신림입야의 재산권 행사(그린벨트 해제) 등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급변해가는 정치환경에 대처하면서, 또 우리 종원들간에 친목을 더욱 두텁게 다지면서 새해에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종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깃드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鎮川宗親會總會開催

지난 3월 6日 忠北鎮川宗親會의 定期總會를 鎮川農協會議室에서 많은 宗親들의 參席裡에 盛大히 舉行하였다. 이날 특히 淸州宗親 會坪宗親會 또 燕岐宗親會 會長들과 元老宗親들을 招請하여 會議에 參席하여 더욱 빛났다. 國民儀禮와 先祖英靈에 對한 默念에 이어 會長人事와 來賓祝辭로 이어졌는데 祝辭에는 會坪宗親會長 在成氏와 淸州宗親會長 奎馨氏가 하고 燕岐宗親會長 海演氏께서는 燕岐大捷의 史蹟碑建立에 대한 經過를 말

昌宮)에서 즉위하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구분하여 책록한 순충분위(純忠奮義佐命開國功臣)를 비롯하여 28종의 공신이 있었다.

왕은 공신 일등과 회맹(會盟)을 하였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을 다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목할 것을 맹세하였다.

또한 왕은 교서를 내리고 입각화상(立閣畫像)으로 그 명예를 세전(世傳)하였으며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영작(榮爵)과 토지(土地)·노비 등을 내리고 자손들에게는 음직(蔭職)으로 관직에 등용시켰으며, 등의공신인 원종공신(原從功臣)에게는 녹권(錄券)만 주었다.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로는 공신도감(功臣都監), 충훈부(忠勳府), 녹훈도감(錄勳都監) 등이 있었고, 공신에게 수여한 상훈문서를 공신녹권(功臣錄券) 및 공신상훈교서(功臣賞勳敎書)라 칭했으며, 녹권은 공신도감(功臣都監)이 공신축(功臣軸) 도는 철권(鐵卷)이라 별칭하여 발급하였다.

하고 大宗會副會長 斗會氏께서는 激勵辭로 舊安東과 親安東의 區分에 對한 말씀을 해주셨다. 다음으로 장학금지급이 있었는데 3명의 學生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곳 郡守이신 慶會宗親의 致辭를 한 다음 閉會하였다. 이날 모두의 단결과 뭉쳐야 성공한다는 진리로 和氣에애한 분위기는 너무 보기가 좋았다.

임원은 會長 영조씨 총무는 성연 이사 동무 영일 영희 동회 재득 용묵

### 약초 찾아 30년

#### 충북 대서 명예박사 받는 김재길씨

충북 청주시 석교등에서 「동계원 약국」을 운영하는 천연 약물 연구가 郡事公20代孫 김재길(金在哲)씨가 25일 충북대 졸업식에서 명예 약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충북대는 30여년간 전국의 유명 산을 돌며 세계적인 희귀식물을 잇따라 발견하고, 왕성한 학술활동을 벌인 공로를 인정해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在哲씨는 국내 천연약물 연구분야의 독보적인 존재, 군사분계선부터 한라산까지 전국 방방곡곡 삼천리를 누비며 약용자원 채집과 연구에 평생을 바쳐왔다. 在哲씨가 우리나라 약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 어미죽제비가 구렁이에 물려 다 죽어가는 세끼 죽제비에 은행잎을 덮어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됐다. 在哲씨는 이후 한약방을 경영하는 집안 아저씨와 함께 약초채집을 하며 천연약물에 대한 실전경험을 쌓았고, 26살에 늦깎이로 충북대 약대에 입학, 체계적인 약물연구에 몰두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약국을 차린 후에도 약물 연구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시간만 나면 전국의 크고 작은 산을 돌아다니며 약용식물과 동물, 광물 등 각종 천연약물의 분포상황을 조사하고 왕성한 채집활동을 벌였다.

「약물의 성분과 효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처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병을 치료하기 보다는 오히려 몸을 망치는 가자 약초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在哲씨는 이같은 약물 오용(誤用)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지난 84년 1,308점의 약용 동 식물과 광물을 망라한 「원색 천연 약물 대사전」(상·하권)을 출간, 출판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학계의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在哲씨는 이 책 외에도 5권의 약물관련 서적을 출간했고, 올해 안으로 천연약물 800여종을 새로 담은 대사전 3권을 펴낼 계획이다.

在哲씨는 특히 「자주 족두리 풀」, 「좁은잎 처녀치마」, 「풍도바람꽃」 등 수십종의 희귀 천연 약초를 처음으로 발견해 학계에 보고하고, 이 가운데 10여종에 학명을 직접 부여하기도 했다. 지난 85년부터 모교인 충북대 약대에서 한약학과 본초학, 한방개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 후독한 경영수업으로 화제

郡事公 19代孫 무역협회 金在哲 會長

#### 20여년전 기행문 교과서에 실려 장남 어선태우고 둘째 생산직 시켜

지난 10월 무역협회 회장으로 정식 선출된 김재철(金在哲·64) 동원그룹 회장. 그가 무역협회 회장이 되면서 그의 글솜씨와 검소한 가정생활, 아들들에 대한 후독한 경영수업 등이 자세히 알려져 세삼 화제가 되고 있다.

김 회장은 60년대 초반 원양어선을 탈 때의 경험과 해양개발의 꿈을 잡지「사상계」에 기고한 적이 있다. 당시 이 글을 본 소설가 정비석(鄭飛石)씨가 「작가가 되는데 낫겠다」고 권유했을 정도. 그의 빼어난 글솜씨는 20여년 전 국민학교(현재 초등학교) 교과서 편찬팀의 눈에 띄었다.

「물 위로 보이는, 때를 지어 놀던 고기들이 놀라서 달아나고, 한가로이 물에 떠있던 고래도 배를 피해 점잖게 물속으로 자맥질을 한다... 남태평양에서 큰 형으로부터.」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남태평양에서」라는 기행문의 일부로, 여기서 「큰 형」이 바로 김 회장이다. 이외에도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바다의 보고」, 실업계 고교 국어 교과서에 「거센 파도를 헤치고」라는 김 회장의 글이 실리기도 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지금도 외부원고는 직접 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사생활도 매우 검소하고 철두철미한 것으로 소문 나 있다. 그는 작년 IMF 쇼크 때 부인이 타던 포텐차 승용차를 팔도록 했다. 작년 한해 동안 김 회장 부인은 지하철과 택시, 버스를 타고 다녀야 했다. 김 회장 부인은 최근에야 자동차 구입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회장의 둘째 아들 남정(楠鼎·27)씨는 김 회장의 특별지시로 97년 경남 창원 참치통조림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해야 했다. 작년에야 서울로 올라와 현재도 서울 중랑구 면목2동 동부영업부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둘째 아들은 다른 영업사원과 똑같이 백화점과 대리점에 통조림을 배달하고 진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동원산업 상무인 만아들 남구(楠玖·37)씨도 아버지의 명예 따라 대학 졸업 후 6개월 동안 선원으로 원양어선을 탔다고 한다.

김 회장은 이런 스타일 때문인지 동원그룹은 매출이 2조원을 간신히 넘는 중견그룹이지만, 부채비율이 198%에 불과할 정도로 탄탄하기로 소문나 있다.

### 향전원에

代表 金在均

783-3166, 783-3167, 780-8477

FAX : 780-8478

자택 : 552-5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20

(프린스텔 1층1·2호)